

에너지자립을 추진하는 등용마을

태양과 바람이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

등용마을의 생명평화마중물과 부안시민발전소는 2008년부터 ‘재생가능 에너지 체험학교 및 캠프’를 운영하고 있다. 햇빛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기와 태양열 조리기로 생산된 전기로 생활하며 음식을 익혀먹고, 소형 발전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직접 다루고 만지면서 생활하는 것이다.

주민들이 출자한 전국 최초의 시민발전소

부안군 등용마을(주민 600여명)은 2003년 6월 6일,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출자한 시민발전소(생居扶安)를 설립했다.



41kW

가

60%

30%

가

가

?

가

2008

가

가



자전거 발전기

2008

가

가

(Weatherization)'

1가

2

가

(焉敢生

心)

(Weatherization)'

가?'



에너지 학교

등용마을 만들기 중장기 계획

가

가

가

[illegible]

이현민
부안시민발전소 소장
2e-seul@hanmail.net

4) 굳이 '착한 바이오디젤용 유체'로 표현한 것은,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작물 해외 플랜테이션 확보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. 한국 역시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 현지에서 쌀, 밀, 콩 등 작물뿐만 아니라 자트로파, 유채, 팜 등의 대규모 현지 법인을 세워 생산된 원료곡을 들여오는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. 유럽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원료곡에 의해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매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.